

'특수교육 발전 유공자' 4명 교육부장관 표창

광주시교육청, 장애인의 날 맞아 28명 표창 수여

광주시교육청은 '제45회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맞아 18일 광주 특수교육지원센터 연수실에서 특수교육 발전 유공자에 대해 교육부장관 표창장 및 교육감 표창장을 수여했다.

시교육청은 매년 교육기관과 특수교육 현장에서 장애인식을 개선하고 특수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교직원, 학생, 특수교육 지원인력, 지역 인사 등에게 교육부장관과 교육감 표창장을 수여하고 있다.

이날 광주선명학교 이재나 교사, 광주선우학교 이순영 교사, 은혜학교 박석일 교사 등은 교원 부분, 시교육청 박규성 주무관은 일반직 공

무원 부분 등 4명이 교육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또 학교 및 지역 기관에서 추천한 특수교육대상학생 5명, 특수교원 3명, 통합학급 담당교사 3명, 특수교육실무사 5명, 장애학생활동지원사회복무요원 5명, 지역사회인사 3명 등 24명에 대해서는 교육감 표창이 수여됐다.

이정선 교육감은 "교육기관 및 특수교육 현장 등에서 장애인식 개선 및 특수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애쓰는 모든 교육가족께 감사드린다"며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장애공감문화 조성 및 통합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광주선우학교 특수교사 이순영, 광주선명학교 특수교사 이재나, 은혜학교 특수교사 박석일, 시교육청 주무관 박규성이 교육부장관 표창장을 수여받았다.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선주 기자



광주전남지방병무청-광주병원 업무협약 체결. 광주전남지방병무청은 21일 광주병원과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사람에 대한 예우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 마련됐으며, 병역명문가 및 직계 가족이 광주병원 이용 시 진료비 등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도희 기자



건협 메디체크어머니봉사단, 엠마우스복지관 봉사활동.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는 지난 17일 엠마우스 복지관에서 메디체크어머니봉사단과 함께 환경개선 및 교육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봉사는 복지관 회원들이 보다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교육장 및 시설 내부를 청소했다.

/조선주 기자



민주평통 광양협의회, 하동군 산불 피해 복구 성금 전달. 민주평화 통일자문회의 광양시협의회(이하 광양시협의회)는 경남 하동군청 군수실에서 진행된 기탁식에서, 산불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한 성금 200만 원을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남기호 회장을 비롯한 광양시협의회 자문위원들이 자매결연 도시 하동군의 피해 주민들을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금에 참여해 마련했다.

/평양=조선의 기자



순천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불피해 합동훈련. 순천국유림관리소는 곡성군 죽곡면 유봉리 일원에서 2025년 봄철 유관기관 산불피해 합동훈련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순천국유림관리소·곡성군·곡성소방서 3개 기관이 합동으로 실시했다.

/순천=조선의 기자

전남도명장, 경북 청송·안동 산불피해 이재민 급식봉사

조혜경 요리 명장, 김경진·장용덕·최상원 공예명장 등



전남도명장 등이 최근 경북 청송군과 안동시의 산불 피해지역을 찾아 이재민을 위한 급식 봉사활동을 펼쳤다. 전남도에 따르면 이번 봉사에는 전남도 조혜경 요리 명장을 필두로 김

경진·장용덕·최상원 공예명장과 한식대접3출연진 등 총 10명이 산불피해 이재민에게 작은 보탬이 되고자 뜻을 모아 참여했다.

청송군에는 조혜경 요리명장이 정성껏 조리한 전복죽 200인분과 바나나, 구호 물품 등을 전달했다. 안동시에는 직접 준비한 찹쌀, 새알미역국, 반찬, 된장, 고추장 등 200인분의 식사를 나누며 이재민의 심신 회복을 도왔다.

전남도명장은 38개 분야 산업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하고 지역 숙련기술 발전에 공헌한 자로, 전남도에서 매년 하반기 신청을 받아 5명 이내로 선정하고 있다.

조혜경 명장은 "이번 산불피해 어려움을 겪는 주민의 일상이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며 "앞으로도 전남도명장과 힘을 모아 지역 사회에 모범이 되는 행보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조선의 기자

광양희망도서관 '초등북스타트 책날개' 배부

광양시는 지역 초등학교 1학년 150명을 대상으로 '초등북스타트 책날개' 책꾸러미를 배부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시는 북스타트 사업을 통해 생후 13개월부터 초등 1학년 이하 어린이,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책 꾸러미를 배부하고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중 '책날개' 사업은 초등학교에 입학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나가는 어린이들이 책과 자연스럽게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돕고, 독서 습관 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초등북스타트 책날개' 책꾸러미는 북스타트코리아 도서선정위원회에서 추천한 그림책 '이 선을 넘지 말아 줄래?', '끼꼬 할아버지의 비밀' 2권과 함께 보호자를 위한 안내 책자, 북스타트 가방으로 구성됐다.

광양시립도서관 4곳(희망, 용강, 중마, 금호)에서 책꾸러미를 선착순으로 배부 중이다. 희망자는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 도서관에 방문하면 된다.

김미라 도서관과장은 "아이들이 책과 함께 즐거운 학교생활을 시작하고, 책을 평생의 친구로 삼아 꿈을 키워가길 바란다"며 "초등북스타트 '책날개' 사업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광양=조선의 기자

김상욱 제2대 亞문화전당장 취임

지난 2월부터 공모, 3개월 만에 선임...임기 3년

김상욱 제2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이 21일 취임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김 전당장이 이날 임명돼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김 전당장은 1990년 연세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했으며 이듬해 제34회 행정고시에 임용됐다. 국립중앙박물관 교육문화교류단

장,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관과 관광산업정책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기획운영관 등을 지냈다.

김 전당장은 이강현 전 전당장이 임기를 마친 이후부터 약 3개월째 전당장 직무대리를 맡았다.

김 전당장의 임기는 3년으로, 오는 2028년 4월20일까지다.

인사혁신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전당장을 지난 2월부터 공



개 모집해 심사 등을 거쳐 3개월 만에 김 전당장을 선임했다.

/심연희 기자

기사제보 062)363-8800
호남매일 www.homae.co.kr

보길면 윤선도원림, 직원들 손길로 빛나

세연정·낙서제, 기간제 직원들이 남는 시간 활용 청소



보길면 윤선도원림의 세연정과 낙서제는 최근 기간제 직원들이 한가한 시간을 활용해 꾸준히 청소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 아름다운 정원은 그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이들의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이번 청소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진행됐다.

윤선도원림을 담당하는 강길동 팀장은 "우리 직원들이 근무 시간 외에도 관광객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원림 청소에 힘써주고 있다"며

"이러한 성실한 노력 덕분에 윤선도원림이 항상 깨끗하고 아름답게 유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정소는 단순한 작업이 아니라, 지역 사회의 아름다움과 문화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활동으로 평가 받고 있다.

이와 같은 사연은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보길면의 명성을 더욱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완도=이두식 기자

순천 승주읍, 화재 피해 주민 돕기 나서

8개 단체 740만원 전달... "이웃 아픔은 내 가족의 아픔"



순천시는 승주읍 두월리 주택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을 돕기 위해 승주읍 8개 직능단체가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 총 740만 원을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화재는 지난 11일 발생했다. 이에 ▲승주주민자치회가 160만 원 ▲승주지역발전추진위원회, 승주효동마을 주민 이동, 승주라인댄스동호회, 승주풍물단 등 4개 단체에서 각각 100만 원 ▲승주마중물보장협의회가 80만 원 ▲승주이장단협의회에서 50만 원을 기탁해 이웃사랑을 실

현했으며, 승주읍 공무원들도 십시일반 50만 원을 모아 마음을 더했다. 직능단체 대표들은 "내 이웃의 아픔은 곧 내 가족의 아픔"이라며 "지역의 따뜻한 정과 연대의 힘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강진숙 승주읍장은 "지역사회가 함께 모은 따뜻한 마음이 피해 주민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서로 돌보고 함께하는 공동체 문화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순천=조선의 기자

목포해양대, AI기반 디지털 프로그램 운영

GPS교육혁신본부 'D-LAB' 8월까지 운영



국립목포해양대학교 GPS교육혁신본부는 디지털시대 핵심 역량 강화를 위한 AI 기반 비교과 프로그램 'D-LAB(Digital LAB, 이하 디랩)'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목포해양대의 '디랩' 프로그램은 AI와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학생이 원하는 온라인 콘텐츠를 자유롭게 선택해 학습할 수 있는 자기주도형 프로그램이다.

전공에 관계없이 참여 가능하고, 디지털 활용 능력과 문제해결 능력 향상을 목표로 2025년 4월부터 8월까지 운영한다.

'디랩' 프로그램은 전공과 관계없

다. 디지털 리터러시와 창의적 사고 함양을 목표로 하는 일반 학부생 대상 비교과 과정, 컴퓨터공학전공 재학생을 위한 교과-연계형 과정 등 두 가지 트랙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디랩' 프로그램은 대학이 AI와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학생이 원하는 온라인 콘텐츠를 자유롭게 선택해 학습할 수 있는 자기주도형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학생들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원하는 학습을 선택하고, 이를 통해 실제적인 디지털 역량을 키울 수 있다.

/목포=김재욱 기자